

서지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모전 제출일에 박경진의 작품을 대신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다 원고를 넣어 둔 두 작품의 봉투가 물에 젖고, 서지환은 봉투에서 원고를 꺼내 새 봉투에 갈아 넣는다. 그 후 서지환 앞으로만 공모전 결과 편지가 도착하고 결과는 대상. 그러나 대상을 받은 작품은 박경진의 작품인 '세상이 기우는 소리'. 서지환의 실수로 둘의 원고가 바뀐 것이었다. 당황하던 찰나 들어온 박경진. 박경진을 보며 미안함과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자신이 대상이라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완전히는 감춰지지 않는다.

S#. 경진과 지환의 집, 낮

우편물 여러개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지환.

지환(NA): 아마 그때가 공모전 발표날 쯤이었을 거예요.

우편물들 사이로 지환의 이름으로 온, 호성문학사 글씨가 적힌 봉투가 보인다. 지환은 흥분하며 다른 우편물들을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고 옆에 서서 빠르게 봉투를 뜯는다.

안에 있는 종이를 펼치자 드러나는 문구
"축 대상"
작가 서지환

눈이 휘둥그레 지며 놀라는 지환

지환: 헉!! 진짜로!!!? 허어

지환은 매우 기뻐하며 숨을 몰아쉰다. 이내 벅차오르는 듯 눈시울이 붉어진다.

믿기지 않는 듯 손끝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다시 읽어보는 지환
작품명 "세상이 기우는 소리" 에서 손가락이 멈춘다.

지환:뭐?

"세상이 기우는 소리" 를 가운데로 종이를 쥔 양손에 힘이 들어가 부들부들 떨린다.

지환: 이게....

지환: (크게 당황하며) 이게 왜 여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진이 들어온다

경진: 나 왔다~

지환은 화들짝 놀라며 보고 있던 종이를 뒤로 숨기고 경진을 본다.

들고온 가방을 침대 위에 놓으며 어딘가 이상한 지환을 바라보는 경진은 무슨 종이냐고 묻는다.

경진: 뭐냐? 뒤에

지환: 아... 아냐! 아무것도..

경진: 뭐야.... (장난치려는 듯 웃으며) 뭔데 그래!

경진은 지환이 숨긴 것을 빼앗으려는 듯 다가간다. 지환은 힘주어 종이를 안뺨기려 한다.

서로의 손으로 잡혀있는 종이, 반으로 찢어져버린다

지환: 아, 안돼.... 아!

이겼다는 듯 장난스럽게 웃으며 찢어진 종이를 가져가 읽는 경진. 아랫부분이 찢어진 종이에
"대상, 서지환" 이라는 글자만 남아있다.

경진: (크게 놀라며/진심으로 기뻐하며) 허어! 야, 너 이 새끼 진짜 대상됐네?

지환: (당황하며)어, 어!

경진: (지환을 툭 밀치며/자기일인듯 기뻐하며) 야, 뭐 반응이 그래~?! 너 진짜 작가가 되긴
되는구나? 어?

지환의 손이 '세상의 기우는 소리'가 적혀있는 찢어진 종이를 힘주어 구긴다.

경진은 기쁘다는 듯 지환과 하이파이브 같은 악수를 한다

경진: 야 진짜 축하한다 씨!!

지환: 어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다...!! 너는... 뭐... 안 왔어?

경진: 아~ (살짝 씩씩하게) 없더라고~ 뭐 괜찮아! (다시 기쁘게) 둘 중 한명이 대상인데 나
떨어진게 대수냐?

지환: 아.. 그래.. (여전히 당황한 태도, 어색하게) 괜찮아...! 또 도전하면 되지!

경진은 테이블에 종이를 내려다놓고 침대 쪽으로 가 쭈그러 앉아 가방에서 짐을 꺼낸다.

경진: (괜찮다는 듯 웃으며) 됐어, 난 이제 안 하련다~ 시간도 없고

가방을 챙기다 손을 멈추고 굳은 얼굴로 말하는 경진

경진:값아야 할 돈도 어마무시하고,

지환: ...어?